



정인육복지재단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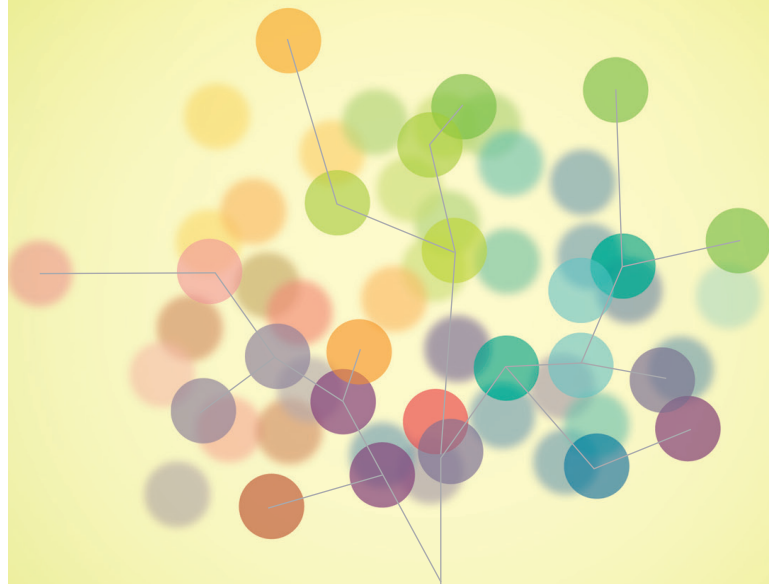
정인육복지재단은 1993년 12월 설립되어 지금까지 아동, 노인, 장애인 복지분야의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해 왔으며 2005년도부터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에 초점을 두어 시각장애인 해외 연수 사업, 학술연구 및 학습지원 서비스, 문화 예술지원 사업 등 시각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를 개발하여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각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다각도로 고민하며 진정한 디딤돌이 되고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중도실명자 상담 프로그램

새로운 희망의 시작

방황은 짧게, 결심은 빠르게!

재활의 길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상담전화 02)723-2356
E-mail chungfoundation@hanmail.net
홈페이지 <http://www.chungiw-hsf.or.kr>



(재) 정 인 육 복 지 재 단
CHUNG IN WOOK HUMAN SERVICE FOUNDATION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게 된 현실에 절망하고, 마치 삶이 끝난 것 같이 좌절하시는 분들에게, 이미 그 길을 지나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재활의 길을 안내해드립니다. 현실에 주저앉아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손을 뻗어 도움을 청하시면 언제든지 각자의 상황에 맞는 재활의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해 나가도록 도와드립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2012년부터 저희 재단에서 선천적 장애가 아니라 사고나 질병 등으로 점차 시력을 잃거나 실명 위기에 계신분들의 재활을 도울 수 있는 재활기관이나 도움을 주실 멘토들을 연결해드립니다.

정인욱복지재단 상담전화 : 02)723-2356



지금 **방황** 중 이신가요



이인호 · 특수교사, 37세, 1급시각장애인

저는 28살에 망막색소변성증 진단을 받은 후 급격한 시력저하와 시야협착 증상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도 시각장애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2년이란 세월을 술과 담배로 가슴에 쌓인 한을 풀려다 심신은 지칠대로 지쳐갔지요. 죽고만 싶었고 모든 것을 부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릴없이 시간만 축내던 중 녹음 도서로 소설책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시각장애인복지재단’에서 녹음 도서를 임대할 수 있다는 것과 점자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어 3개월 동안 점자와 보행훈련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을 되찾은 안마사, 시각장애인 사회복지사와 특수교사 등 자신의 영역에서 보람된 삶을 꾸려나가고 있는 중도실명자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대학을 졸업하였지만 서른이란 늦은 나이에 한빛맹학교 고등부에 입학하여 안마를 배웠고, 졸업 후에는 공주대학교에 진학하여 특수교육을 전공하였습니다. 2011년 2월 제 나이 서른여섯에 임용고시에 합격하였습니다. 실명 후 처절하게 고통받던 시절이 있었기에 현재의 제가 있겠지요. 하지만 방황의 시간을 빨리 끝내고 장애를 받아들였다면 제 꿈을 더 빨리 찾지 않았을까요?

혹시 방황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두드리세요. 저는 당신이 두드릴 수 있는 문입니다. 당신이 그 문을 열고 저에게 다가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재활훈련으로 제2의 삶을

유성열(가명) · 남, 59세, 1급시각장애인

제 나이 37살이었던 1991년 베헤트 증후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날 이후 6년 동안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며, 실낱같은 희망도 버리지 않고 일본까지 찾아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완전실명’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사형선고와 같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 아무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날 이후 3년이라는 세월을 흘려보내며 틈만 나면 죽을 생각만 했습니다. 아파트 난간에 발을 올려놓고 뛰어내리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차마 죽을 수가 없었습니다. 죽을 용기가 있으면 그 용기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명하기 전 등산길에 보았던 시각장애인 기관이 생각났습니다. 몇 날을 망설이다 무작정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재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때까지 모르고 있었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단체와 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점자공부도 하고 안마와 침술도 배우며 시각장애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현재 작은 안마원을 운영하며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실명하기 전에 운영했던 사업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는 없지만 저를 찾아왔던 손님들이 “감사합니다” 라며 돌아갈 때는 자부심도 느낍니다. 완전히 실명하기 전부터 재활훈련을 받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좀더 일찍 재활기관을 알았더라면

이태양(가명) · 남, 66세, 1급시각장애인

두 번 다시 생각하기조차 싫은 일을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에 저 스스로가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때는 연매출 400억이 넘는 무역업을 하기도 했지요. 베트남으로 사업장을 옮기기로 하고 출국을 몇 일 앞두고 안과병원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4년 동안 17번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1퍼센트의 가능성에도 매달렸습니다. 그러는 동안 몸도 마음도 황폐해졌고 사업도 건강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빈 손 뿐 절망과 분노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고 죽을 방법만을 생각했습니다.

뒷산으로 가서 절벽에서 뛰어내렸지만 등산객에게 발견되었지요. 세 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으나 미수로 끝나고 아들의 마음에 상처만 남겼습니다. 울부짖는 아들의 하소연에 마음을 바꾸었지만 보이지 않는 세상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저에게 인구조사를 나왔던 사람이 봉사단체를 소개해주어 지금은 재활기관과 단체에서 보행훈련도 하고 정보교환도 하고 있습니다.

재활훈련을 하면서 점차 건강도 회복되고 절망과 분노로 가득했던 마음이 서서히 녹아들기 시작하여 웃기도하고 가끔은 행복감도 느낍니다. 좀더 일찍 재활훈련을 하지 못한 것이 후회가 됩니다. 당장은 죽을 것만 같지만 장애를 받아들이고 재활을 위해 노력하면 오늘의 아픔까지도 편하게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권순동

삼성전자 시스템가전영업그룹 사원

- 1985년생, 19세 실명
- 실명원인 : 망막박리(녹내장)
- 재활과정 :
 - 2003년 9월 수술
 - 복지관 기초재활 3개월 수료
 - 2005년 연세대 경영학과 입학
 - 2011년 10월 삼성전자 입사

해주고 싶은 말 • 실패를 각오하고 도전하십시오. 물어보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물어보지 않으면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김병호

삼성전자 수원지원센터 인사팀 대리

- 1966년생, 31세 완전실명
- 실명원인 : 포도막염
- 재활과정 :
 - 삼성전자 무선사업부 근무 중 93년 포도막염 발병
 - 1996년 복지관 기초 재활 수료
 - 1997년 삼성전자 복직

해주고 싶은 말 • 가장 먼저 할 일은 장애를 인정하고 점자교육 및 흰지팡이를 이용한 단독 보행 교육 등 기초재활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김상화

인천 양촌중학교 영어교사

- 1968년생, 30세 실명
- 실명원인 : 녹내장
- 재활과정 :
 - 2001년 1월 녹내장 악화로 국제법률사무소 퇴사
 - 2004년 2월 기초재활 훈련
 - 2005년 숙대 교육대학원 입학
 - 2007년 석사학위와 교사 자격증 취득
 - 2009년 임용고시 합격

해주고 싶은 말 •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가지고 노력하면 꼭 이루어집니다.



김영일

국립중앙도서관 장애인지원센터소장

- 1967년생, 8세 실명
- 실명원인 : 선천성 녹내장 및 후천적 외상
- 재활과정 :
 - 맹학교 졸업 후 대학 및 대학원 과정을 마치고 외국유학
 - 2001년 조선대학교 교수로 임용
 - 2011년 9월 교수직을 휴직
 - 국립장애인도서관 지원센터 소장

해주고 싶은 말 •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다른 시각장애인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다 보면 실명은 단지 내 인생의 일부일 뿐 내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유일한 열쇠가 아닙니다.



송영희
(주)엔비전스 대표

- 1972년생, 19세 실명
- 실명원인 : 베체트 증후군
- 재활과정 :
 - 1993년 피아노 조율사 자격증 취득
 - 1999년 컴퓨터 속기사 훈련
 - 2009년 (주)엔비전스 대표
 - 시각장애체험 전시,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해주고 싶은 말 • 재활을 통해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각자의 삶 속에서 스스로 행복하기 위한 모든 노력들이 그 마지막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박민규
대구대점자도서관 교정사

- 1978년생, 13세 실명
- 실명원인 : 시신경위축
- 재활과정 :
 - 1991년 기초재활 훈련
 - 1993년 맹학교 입학
 - 2000년 점자 교정사로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근무
 - 2010년부터 대구대학교 점자교정사로 근무

해주고 싶은 말 • 실명이란 모든 사람에게 있어 매우 큰 시련입니다. 하지만 그 시련이 크다 해서 그 이후에 올 삶의 가능성까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손우석
하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직원

- 1980년생, 16세 실명
- 실명원인 : 망막색소변성증
- 재활과정 :
 - 대학교때 복지관 기초재활 훈련
 - 재활 후 맹학교 입학
 - 다시 대학 진학
 - 2010년 11월 하상장애인복지관 점자도서관 온소리 기획담당

해주고 싶은 말 •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고통은 크지만, 시각장애인이라는 말은 곧 다시 태어나는 나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세요.



송오용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대표

- 1971년생, 8세 실명
- 실명원인 : 망막박리
- 재활과정 :
 - 맹학교에서 의료과정 이수. 3년간 안마사로 종사
 - 1996년 ~ 2002년 시각장애인 복지관 근무
 - 2002년 6월 엑스비전 테크놀로지 설립

해주고 싶은 말 •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주저 말고 도전하고 최선을 다해 노력 하세요. 어느 순간 정상에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입니다.



임지빈

한국시각장애인복지관 재활부

- 1960년생, 21세 실명
- 실명원인 : 사고로 인한 망막박리
- **재활과정 :**
 - 중도실명자를 위한 재활기관을 거쳐 맹학교 졸업
 - 1991년 10월 복지관 입사
 - 중도실명자를 대상으로 점자지도 담당
 - 훈련생의 진로상담 등 통합교육과 아동 점자지도를 담당

해주고 싶은 말

워집니다.

- 방향은 짧게, 결심은 빠를수록 재활의 길이 쉬워집니다.



조성재

대구대학교 직업재활학과 교수

- 1971년생, 선천성 장애
- 실명원인 : 원인불명
- **재활과정 :**
 -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맹학교 졸업
 - 대학에서 학부, 석사, 박사 과정
 - 2006년부터 대구대 근무

해주고 싶은 말

• 우리 사회에는 눈이 보이지 않아도 자신의 분야에서 제 몫을 다하며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고 더 멋진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빨리 현실감 있는 재활훈련을

주천기 · 서울성모병원 안과장

시각장애인 중에서 완전맹은 아니지만, 더 이상의 안과 치료를 하더라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시력이 떨어지거나 시야가 좁아진 경우를 “저시력”이라고 합니다. 저시력 환자들은 개개인의 정도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저시력 보조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아서 남아있는 시기능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저시력 재활 프로그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저시력 환자들이 저시력 재활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고 있고, 시각장애 판정과 함께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가 있는 어린이들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적절한 학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또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진 성인이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시력 재활 프로그램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얼마 전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 판사가 임용되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각장애가 있다는 것이 더 이상 꿈을 가로막는 방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각장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빠른 시간 내에 현실감 있는 재활훈련을 통해서 사회에 복귀하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